HOME > 전국·사회

학생들 학교서 자연스럽게 예술 접한다… 강북문화재단, '우리 학교는 미술관' 사업 큰 호응

안용호 기자 | 승인 2026.10.16 17:32

> '우리 학교는 미술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하나의 '일상 속 미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수유초등학교에서 구민 도슨트가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강북문화재단

서울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학교는 미술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하나의 '일상 속 미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북구 관내 학교 복도와 유휴공간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에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 공간의 문화적 전환'과 '능동적인 예술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구민 도슨트들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작품을 해설하며, 학생들이 예술을 어렵고 낯선 대상이 아닌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강북문화재단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해 향후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잇는 생활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호응 속에 매년 신청 학교도 늘고 있다.

강북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이 특정 공간이나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유초·유현초·인수초·수유중 등 강북구 관내 4개교에서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한편, 강북문화재단은 유연하고 친근한 태도로 주민과 예술가, 예술가와 기획자, 일상과 예술을 이어간다. 전략 목표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문화예술 향유 확대, 강북다움 실현, 혁신경영 시스템 구축이다. '역사로 꿈꾸고 문화로 빛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다.

안용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경제 CNB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